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논나 수녀(그레고리 성인의 모친)

마태오 제10주일

성 에브시그니오스 순교자,

성 논나 수녀(그레고리 성인의 모친)

제1조, 조과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1조 부활 찬양송 / 81. A 211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인 찬양송
- 성당 찬양송
-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 축일 시기송 / 178. B 183
- 사도경 : 고린토 전 4,9-16 / 봉독서 202
- 복음경 : 마태오 17,14-23 / 114. B 46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의 어머니, 성 논나

교회는 성인들의 어머니이면서 그들을 키운 거룩한 여성 그리스도인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 한 분으로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의 어머니이신 성 논나(4세기)를 교회는 8월 5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점토나 대리석으로 만든 것이 아닌 살아있는 하느님의 영혼인 인간을 마치 조각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 듯이 정성들여 키우고 양육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이 여인은 귀중한 보물입니다. 자신의 삶을 찾겠다는 평계

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여성의 고귀한 힘과 소명을 저버린 현대의 적지 않은 여성들은 이런 영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웅적인 어머니의 이름은 비록 그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다 해도, 교회에서 존경과 감사로 찬란하게 기념될 것입니다. 한 아동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어머니들을 주십시오. 세상을 바꾸어 놓겠습니다.”

사탄을 몰아내는 십자성호

세례성사를 할 때 제일 먼저 행하는 일이 사탄을 퇴치하는 의식이다. 이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인성을 회복하기 위한 의식이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지혜의 나무)를 따먹은 결과 낙원에서 쫓겨나 혹독한 노동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선조들이 겪은 불순종의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즐거움을 찾아 이곳저곳을 해매며 죄짓고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로 살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죄의 족쇄에서 풀어주시고 예전에 행하던 낡은 인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신다.

세례식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인간 창조의 행위이시다. 세례식을 통해 우리는 생명 나무 즉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생명 나무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크나큰 축복을 받는다. 즉 세례를 받은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인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세례자들이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사탄이 존재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세례를 받고 다시 새로 태어난 우리는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멀하는 권한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사탄이 접근해 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죽는 순간까지 물리치는 세례자

들만이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사탄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고 죄를 지으며 죽는 순간까지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투쟁의 교회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영광 속에서 다시 나타나실 그날까지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사탄을 멀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식의 퇴마의식은 새로 탄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 속에 머물고 있는 모든 잡신들과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나이다.”라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표시로 사탄을 퇴치한다.

이렇게 사탄을 퇴치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서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기도문에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한다. 이는 주님의 권능으로 십자성호를 그으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탄을 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비록 사탄의 유혹을 받더라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뜻이다. 내 자신이 지은 죄는 내 자신이 책임지고 고백해야 한다. 아담이 타락하고 서도 그 원인을 주님께서 짹지어 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태도는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아담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자유 의지로 순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인 십자가의 힘으로로 모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 3면으로 계속

성모님의 안식 1

성모님의 안식 축일(8월 15일)을 준비하는 금식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가 안식하신 뒤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신 사건을 생각한다. 이 축일은 정교회와 로마카톨릭 교회 밖의 다른 여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축일인데, 그 이유는 현대의 여러 다양한 개신교 교파들에서 크게 공경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와 관련된 축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 교회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교회들에서는 테오토코스 성모님이 모든 성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존경받았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성모님에 대해 교회가 쓰는 용어와 성모님에 대한 공경은 사도 시대 이후로 변하지 않았다. 한 예로 초대 교회의 여러 교부들 가운데 한 분인 이에로테오스 성인(10월 4일 축일)이 1세기에 성모님의 안식에 대해 말한 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찌기 사람이 본 것 가운데 이런 경이로움이 언제 또 있었던가? 모든 이들의 여왕이신 분이 어떻게 숨을 쉬지 않은 채 누워계신단 말인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영면(永眠)하신단 말인가? 동정녀여, 당신은 예언자들의 설교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경배하고, 천사들이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뻐 하소서! 당신은 은총으로 가득 찼으며, 당신을 통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가브리엘 대천사와 함께 우리는 찬미가를 부릅니다.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선포한 예언자들과 함께 당신을 찬송합니다.”

☞ 다음 주 주보에 계속됩니다.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이러한 막중한 권한을 받고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순전히 우리 자신의 잘못이다. 우리의 승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표상으로 사탄이 죽는 그 순간까지 물리치는 데 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걱정 없이 평안할

때나 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 이를 물리치는 방법은 십자성호를 긋는 행위와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하며 바치는 기도에 용기를 얻고 마귀를 퇴치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소식

대교구

■ 신데즈모스 여름 수련회

하느님의 도움으로 지난 7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신데즈모스 수련회가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신데즈모스 회원들과 암브로시オス 조성암 대주교님과 진지하고 의미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한 형제,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친교의 시간과 오락 시간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매일 예배와 고백성사와 주일 성찬예배를 통해 각자 영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 초등부 영어 캠프 시작

7월 30일(월)부터 초등부 영어 캠프가 시작하였습니다. 8월 4일(토)까지 이루어질 이 수련회 기간이 하느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형제들을 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 중에 그리스에서 산불과 폭우로 인해 많은 희생자들과 부상자들과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 친지들을 위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하셨던 깔로미라 빠렐라두 교우께서 이번 산불 재해로 안식하였습니다. 깔로미라 빠렐라두 교우께서는 재정적으로, 특히 직접 여러 가지 일에 봉사를 하시면서 한국정교회 선교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분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 모두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성찬예배 후 이 재해로 희생된 분들과 그분들의 친지 가족을 위로하는 뜨리스아기온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한국정교회에 도움을 준 그리스 정교회에 이번 희생자들을 위한 성금을 모아서 그리스 정교회를 통해 각 구호 단체에 보낼 것입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